

'장애물 헐기' - 2012년 여름, 94호

여름: 이번 호는 인터넷이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연결과 사역의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지를 탐구합니다.

가을: 북미주개혁교단 장애우사무처의 30주년 기념 으로 우리는 장애우들로 인해서 교회가 변화가 된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미주개혁교단과 북미주개혁교단의 이런 이야기들을 2012년 8월 10일까지 보내주시길 환영합니다.

편집자의 글: '벌써, 그러나 아직은'

테리 디영, 미주 개혁교단 장애우 사무처의 코디네이터

작년부터 우리 두 교단 북미주개혁교회와 미주개혁교단 장애우 사무처 지도자들은 '포함'이란 책자를 함께 발간하였다. 이 작은 책자는 첫 출판이 거진 다 소요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우리는 수정된 '포함'의 다음 출판을 기대하고 있지만 벌써 수정된 인터넷판은 준비돼 있는 상태이다.

미주개혁교단(www.rca.org/disability)이나 북미주개혁교단(www.crcna.org/disability)의 웹 장애 면을 보면 여러분은 '포함'의 책자를 볼 수 있고 전에 수정한 부분들을 필요한대로 복사할 수있다.

나는 지난 주에 '포함'의 책자외에 장애 주일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에 질문을 받았을 때도

나는 우리 장애 웹 페이지를 예를 들었고, 특히 장애 인식 주

일(www.rca.org/disability)의 면과 "예배위한 자료들"

(www.crcna.org/pages.disability_worship.cfm)면을 언급하였다.

여러분은 여기서 장애에 연관된 수많은 다른 웹사이트의 자료들을 필요한대로 찾을 수 있다.

웹은 한계가 있다

요엘 벤델 몰렌, 북미주 제이 개혁교회 성도, 펠라, 아이오와주

1985년에 나는척추 장애를 받았다. 지금 나는 오직 목위의 부분만 움직인다. 장애가 났을 때 컴퓨터는 벌써 큰 사무실에서는 보편화되고 있었다. 몇몇 집에는 있었지만 아직은 단체나 밖에서는 서로 연관을 갖지 못했다. 그때 기술은 급속도로 변화하였고 특히 그것은 지금의 보편화된 인터넷이었다.

내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것은 지금의 웹이라 부르는 인터넷으로 연구하는 것이 점차 보편화 되어 갔다. 2000년 대학을 시작할 때 그것은 공부와 일을 할 때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내 직업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대학 초기 때 교회 웹사이트서 일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일과 다른 사이트에서 일한 것이 나는 그 땀 깨닫지 못했지만 소중한 경험의 지식을 갖게 되었다.

졸업후, 나는 몇 회사들과 인터뷰를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는지 평생직장을 찾지 못했었다. 몇 웹사이트 일한 경험으로 인해 나는 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의 엄마가 주인인(vmtweb.com 벤델 몰렌 기술의 약자) 회사에서 2004년 초에 시작하였다.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은 나를 교회들, 회사들, 기독교 학교들과 다른 곳들에서도 온라인으로 일하게 하셨다. 인터넷은 다른것으론 불가능한 것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몇년 간은 한 친구와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그는 나와 같이 성경을 온라인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있다. 그는 전에는 하지 못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우린 서로 같은 본문 늘 읽고 갖고 있는 다른 질문들을 나눌 수 있게되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으로 인터넷은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주었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일들도 하게되었다. 그러나 계속적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어떤일들이 벌어질지 알것이다. 이는 하늘은 제한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면에선 내겐 웹의 한계가 있는것이다.

편집자의 글: VMT의 도움으로 우리 장애인 사무처의 웹사이트가 보안되어 보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사무처의 페이스북 페이지: 이것은 단지 페이스북 사용자들만을 위한게 아니다

린지 위랜드 카펠, 백위스 힐스 교회 성도, 그랜드 래프츠, 미시간

여러분은 어디가서 감동적인 짧은 영화를 보든지, 장애와 관련된 근래 일들과 포함에 대한 북미주개혁교단과 미주개혁교단의 사람들과 교류함을 갖게되는지요?

답은? 바로 북미주개혁교단과 미주개혁교단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열려있는 페이지로써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있든 없든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다. 이 페이지는 장애인 사무처를 처음 들었는지 아니면 깊게 속해있는지 누구나 할것없이 환영한다.

페이스북 페이지엔 무엇이 있나요? 여러 글들, 비디오들, 자료들과 웹사이트와 함께 북미주개혁교단과 미주개혁교단의 생각들과 답들을 볼 수가 있다. 페이스북 계정이 있는 분은 댓글이나 새 접촉들을 올려 다른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이 장애인 사무처의 면을 “좋다”고 하면 페이스북 페이지들의 연관된 사역들인 우정사역들, CLC 네트워크, 칼빈 기독교 예배 연구소와 북미주개혁교단과 미주개혁교회단의 많은 기관들을 보여준다.

이 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www.facebook.com/disabilityconcerns 에서 아래 것들을 연결해 보세요:

- 북미주개혁교단과 미주개혁교단 장애인 사무처는 26서명자중 2편의 편지를 미국 상원 외국인 관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장애가 있는 분들의 권리 기준을 이 달에 유엔 협의회에 정식 청문회를 열것”을 간청하였다.
- 비디오를 보여줄 때 왜 실제 자막을 올려줌이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몇 큰 교회들은 사람들을 자막 올린 예배와 연관된 다른 행사들에 동원하고 있다.
- PBS의 한 비디오인 “교회들과 장애”의 타이틀은 많은 관점들을 확실히 해주고 있다.
- 한 자폐증 딸을 가진 엄마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고 바라는 글을 적고 있다.

이런일을 알려주세요! 만일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하신다면 북미주개혁교단과 미주개혁교단 장애인사무처 페이지에 “좋다”라고 해주세요. 이 페이지를 친구들에게도 접촉시키거나 오른쪽 위에 있는 “메세지”에 접속해 댓글을 올려주세요. 혹 여러분의 교회가 페이스북이 있으시면 관련자에게도 꼭 이 페이지를 보고 “좋다”라고 하시라고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도 꼭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님을 위한 인터넷 유익들

툼 보스목사, 제일교회 목사, 웰스버그, 아이

오와주, 아이오와 북중양노회의 지역변호인

인터넷이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주고 있을 때 컴퓨터 화면 읽기 소프트웨어는 장님인 나에게도 정보와 대화의 출처를 열어주었다. 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음성 생성을 통해 스크린에서 들을 수 있게 하였다.

나는 책장의 백과사전의 세트로 충분한 나이지만 나중엔 소프트웨어 만으로도 족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읽고 접하는 최신의 정보들-뉴스, 의학이나 과학정보나 그 어느 토픽 모두 볼 수 있다.

나는 집에서 목공예나 수리 작업을 좋아하기에 다른 장님 목공예와 수리작업들과 서로 질문과 아는생각들을 이메일 목록으로 나누고 있다. 보통 장님들은 우리 앞보는 대응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일을 하곤 한다.

이메일 그룹들은 컴퓨터 화면 읽기 소프트웨어와 함께 컴퓨터 사용하는 유일한 기술들을 배우도록 도와주는데 전력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 컴퓨터로 쉽게 읽거나 첨부들도 읽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인쇄편지를 받으면 그것을 먼저 스캔한 후 읽기 전에 디지털 텍스트로 전환해야 하며, 또 만일 누가 내게 손으로 쓴 메모를 주면 나는 그것을 반드시 다른사람에게 읽어달라고 해야한다. 나는 매일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이메일받는 것을 좋아한다.

옥타시아 사역(www.optasiaministry.org) 책임자로서, 인터넷은 내게 세계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기독교신학이나 읽는 자료들을 장님들에게는 다른 식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사용 가능하게 하였다. 이번 주에 나는 코스타 리카에 선교사역을 위해 훈련받는 한 장님 남자로 부터 부탁을 받았는데 나는 그에게 그의 언어 공부를 스페니쉬 성경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드롭 상자 같은 인터넷 도구는 장님들이 큰 파일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에 좋아한다.

웹사이트 설계자들은 장님들이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애쓴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마우스를 사용해 웹 페이지를 스크롤하듯이 내 소프트웨어는 표제들을 이동하거나 링크들의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혹은 헤이지에서 단어나 어구들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인터넷의 또 한가지의 유익은 내가 스카이프(Skype)의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에 좋다. 손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린 그것으로 대화를 나눈다. 비록 내가 보진 못하지만 그들은 나를 본다. 나는 그들의 제주넘기 하는 것을 보는 척하거나 그들의 새 기술들을 칭찬한다.

북미주개혁교회 목사로서 나는 교단 웹사이트의 많은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다. 나는 이번 여름엔 총회의 회의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모든것이 다 잘되는건 아니다. 웹 페이지들을 볼 수 있도록 디자인 돼있지만 어떨 때는 정확하게 체울 수 없는 문서양식이 있든지 혹은 내 소프트웨어론 배려 페이지 웹사이트도 조정하기 어렵다.

인터넷은 컴퓨터와 함께 누구에게나 큰 가능성들을 주지만 그것은 장님들에겐 유일한 유익들을 제공하기에 나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음에 매우 감사드린다.

장애물 없는 사역, 인터넷에게 감사하기

스티븐 라멘, 크로스로드 교회(미주개혁교회), 놀워, 아이오아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뿌리는 열정을 가졌다. 감옥의 기간도 그의 사역을 멈추진 못했다. 그때, 옥살이에서 그는 그 당시의 믿는자들을 격려하는 네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도 수천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유익을 주고 있다.

비록 나는 유명한 바울 처럼 옥살이 하진 않지만 종종 나는 그와 같이 느낀다. 담이나 벽으로 제한돼 있진 않지만 나의 가능성은 뇌성마비로 제한된 사역을 한다.

그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직도 사역의 길을 찾고 있다. 나도 나의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길을 찾고 있다.

나는 교회 고등학교 사역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연결돼 있음으로 그들이 보호받고 사랑받음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게하는 것이다. 나는 말을 못하므로 그들에게 전화로 연결함이 어렵다. 전화하는 대신 나는 인터넷을 사용한다. 가끔 나는 그들의 페이스북에 간단한 글이나 위로의 말을 쓴다. 소셜 미디어가 없으면 나는 이런 학생사역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또 나는 이메일하듯이 친구와 식구들에게도 이렇게 연락을 한다.

비록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어도 난 사역의 귀한 도구인 전자음성장치로 연락을 한다. 하나님은 나를 기독교강당이나 캠프나 학생집회나 노숙자구제사역이나 교회에서 강연할 수 있게 한다. 나는 인터넷이 내 강연들의 자료들을 찾는데 도움과 필요한 여러 그림들도 이용케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처음으로 내가 경연할 때 이것은 단지 사람들의 반응은 관계없이 나의 강연장치 합성음성을 듣는데만 썼다. 그러나 지금은 새 강연을 쓴후 몇시간이나 인터넷을 사용해 필요한 그림이나 강연할 때 함께 사용할 파워포인트 제출도 만든다.

사역위한 인터넷의 다른 사용은 우리교회 현재 웹사이트의 말씀들을 청각설교로 저장하는 것이다. 매주 담당목사가 인터넷으로 예배의 사운드트랙을 보내오면 난 메세지만 빼고 수정해서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놓는다. 곧 목사님은 선교사역에 연계시키면 인터넷을 사용할 가능한 모든사람들은 어디서든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선교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큰 소식이기엔 인터넷은 사람들에게 성격적 가르침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에 감사한다.

바울은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편지들을 가져다 준 위대한 일을 했다. 나도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준 인터넷에게 감사한다. 주님을 위한 나의 영향을 기대 이상으로 사용되는 이 현대 발명에 감사를 한다.